

한반도 통일과 사회통합을 위한 기독교(교회)의 역할

－ 체제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사회통합 문제를 중심으로 －

전 득 안*

목 차

- | | |
|-------------------------|------------------------|
| I. 서론 | III. 통일 준비를 위한 기독교의 역할 |
| II.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및 이론적 배경 | IV. 결론 |

국문초록

분단국가의 현실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한순간도 부정할 수 없는 군사적 대치와 전쟁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인식 하에 한국사회와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평화로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하고 노력해야한다. 교회는 개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가정과 국가의 문제를 포괄하는 공동체적 개념을 가진다. 그러므로 국가적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받은 사명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 대한민국 위에 세워진 ‘분단국가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6.25전쟁 발발 70주년인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가속화 되고 있으면서도 명확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한반도 통일을 넘어서 체제 통일과 그 이후 통합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논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북한 이탈주민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과 자료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를 병용하였다. 근거 이론으로 푸트넘의 사회적 자본 중 주요 요소인 신뢰와 기독교 신학에서 특별계시로 인정하는 성경을 주요 근거로 사용하였다. 기독교 단체와 한국교회가 현재 노력하고 있는 여러 활동들을 분석하면서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진술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체제통일 이후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노력해야할 역할과 방향에 대하여 본 연구자의 관점을 가지고 문헌연구방식으로 정리하였다.

주제어 : 체제통일, 통합, 사회적갈등, 북한이탈주민, 한국교회, 역할, 한국기독교

* 광주 이주민종합지원센터장, 국제학박사

I. 서론

2018년 2월에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는 하루 앞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롤러코스트를 타고 있다.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 중 거의 절반인 49.9%가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선수단이 참가하는 것이 동계올림픽의 성공과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¹⁾ 북한 공식서열 1위인 북한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김영남과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면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 있어서 분위기가 급반전 되었다.

이후에 남북한의 관계는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2018년 4월 27일 4.27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렸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5월 26일에는 5.26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렸으며, 다시 넉 달이 채 안되어서 9월 18일부터 3일 동안 평양에서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와 함께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도 정상회담이라는 형식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세 차례나 만남을 가졌다.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고, 2019년 2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전용열차를 타고 중국을 거쳐 베트남 하노이까지 왕복하는 이벤트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리고 세 번째 북미정상회담 또한 옆집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메시지를 이용한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을 통해 정상끼리의 소통으로 2019년 6월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금까지 그 어떤 미국의 대통령도 북한의 지도자를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짧은 시간에 세 차례나 이루어진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그 이후 예전과 다르게 규모면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긴 하나 아직도 북미간이나 남북 간에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계속되고 있다. 서로 기선 잡기식 돌발 행위는 아직도 여전한 상황이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모두 합해서 여섯 번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이른바 물밑접촉과 실무자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의미 있는 성과물은 나오고 있

1)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메트릭스에 의뢰한 제3차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 페럴림픽 국민 여론조사’. 이 여론조사는 2017년 7월 21일(금)과 22일(토) 양일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알고 있는 전국 15세~79세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무작위로 선정된 유무선 전화번호를 이용한 방식(Random Digit Dialing, RDD)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pm 3.10\%$ 포인트이다.

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휴전선 대치지역 지뢰 제거작업이 남북한 부대 간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서로를 감시하던 감시초소를 폭파 철거하는 등의 다소 간 긍정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2년여의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남북한은 희미하나마 다시 화해와 통일에 대한 실낱같은 기대와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양한 뉴스를 통해 이러한 과정과 노력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특별히 한국전쟁 70주년이 된 올해에는 더 이상 남북한 간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평화적 상황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국민적 의견이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남북한 간의 관계개선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통일에 대한 논의와 접근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의 통일준비는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일부 정부부처가 국가 주도적으로 주관하여 기본계획과 구상을 세운다거나 제도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기초작업을 진행하여 왔다면 이제는 남한과 북한간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문제와 같은 거시적인 차원의 통합과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시민단체가 전면에 나서서 사람과 사람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미시적인 차원의 통합과제에 대해서도 통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전경숙 송영호, 2019)

통일 논의가 무르익고 본격적인 통일과정이 시작된다면 그 즉시 남한과 북한간의 통일현상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같은 매우 실제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사람과 사람간의 교류, 물자 거래와 이동, 손으로는 만지거나 혹은 만질 수 없는 문화형태의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찰과 문제는 남북한 주민 간에 의사소통의 문제, 생각 차이의 문제, 이질적인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기준문제 등 매우 다양하게 발생될 것이다. ‘남북한 사회통합의 문제’는 통일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예외 없이 직면하게 될 것이고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남북한 주민들 간의 사회통합이라는 과제에 있어서 정부와 같은 공식적인 조직이 해야 할 역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같은 비공식적이고 비영리적인 조직이 맡아야 할 영역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교회는 그 기원을 찾아가면 태생 자체가 국가와 한 몸을 이룬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물론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서 그 기원을 찾을 때 그렇다. 우리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고대국가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께서 교회에 주신 명령 중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과 신자가 받을 딴고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원리인 성경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²⁾ 신자의 사명임을³⁾ 기억할 때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과정 속에서 그리고 통일과정과 물리적 통일이후 완전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한국기독교가 감당해야하는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수가 있다.

II.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및 이론적 배경

통일에 대한 연구는 주제와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통일에 대한 연구는 정권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정치적 차원의통일 또는 산업구조나 화폐단위가 단일화 되는 경제적 차원의 통합에 중심축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와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얼마나 통일비용이 들어가는지를 계산하며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가 논의의 초점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이대도 좋지 않으나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통일 시기를 될 수 있는 한 뒤로 미루서 경제적인 여건이 성숙될 때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⁴⁾

그러나 정치나 경제차원의 이루어지는 시스템적 통합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사이에 유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통합이 남북한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외형적이고 정치적인 체제를 갖는다고 두 이질적인 사회에서 살던 구성원들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통의 이념을 가진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통일은 통일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사회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아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의 통일과정 속에서 그리고 통일된 이후에 원만하고 효율적인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어서 어떻게 역할을 맡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2) 이범성(2009). 「통일, 하나님나라 운동」. 신학과 실천 제19권 하권. pp.61-94.

3) 김근주(2017). 「구약으로 읽는 복음의 본질 복음의 공공성」. 비아토르. pp.412-413.

4) 박영신(2000). 「무엇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가?: 두체제를 몰아가는 통일의 장단 [현상과 인식]」. 가을호. 경제위주의 통일논의를 비판하는 글.

1. 선행연구

정재영(2005)은 『사회통합 관점에서 통일 후 기독교의 역할』에서 남북한이라는 이질적인 두 사회 사이의 불일치의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논의를 시도하였다. 정재영은 이러한 논의가 통일과정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종교와 사회통합의 관계를 밝혔다. 정재영은 사회체계가 통합이라는 관점으로 종교 신앙은 행동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체계의 통합을 위한 중심점을 형성한다고 했다. 자칫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도덕적 무규범상태에서 기독교는 종교로서 사회 상황에 필요한 가치체계 및 규범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학규(2007)는 『남북한 통일 후 사회통합을 위한 NGO의 역할』에서 한국기독교가 교회뿐 아니라 다양한 기독교 계열의 NGO를 통하여 활약하고 있음과 통일 독일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새터민의 남한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 상황에 대하여 밝혔다. 그리고 남북한 통일국가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상황에서 기독교를 포함한 다양한 NGO가 감당해야하는 역할에 대하여 밝혔다.

이상은(2019)은 『분단 상황 하 균형자로서의 교회의 역할: 독일 연합교회의 역할과 실천연구』⁵⁾에서 교회는 사회통합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사명임과 독일 통일과정에서 유니온(연합)교회가 독일의 사회통합에 기친 역할을 밝혔다. 유니온교회는 통시적 접근을 통하여 동서분단의 독일의 상황에서 균형자로서 역할과 사회통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 밝혔다.

이범성(2009)은 『통일 하나님나라 운동』에서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남북한의 통일은 기독교의 하나님나라운동임을 신학적으로 밝혔으며 민족통일의 문제가 신학의 주제이며 내용이 되는 이유와 한국, 독일, 베트남, 예멘의 예를 통하여 사회통합 관점에서 통일 문제를 고찰하였으며 그 중에 통일 과정에서 교회의 역할이 컸던 독일의 통일과정과 독일교회의 역할에서 선지자적 역할을 수행한 독일교회의 역할을 밝혔다.⁶⁾

전경숙 송영호(2019)는 「통일대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탐색적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

5) 이상은(2018). 「분단 상황 하 균형자로서의 교회의 역할: 독일 연합교회의 역할과 실천 연구」. 선교와 신학. 44호. pp.353-384.

6) 이범성(2009). 「통일, 하나님 나라 운동」 신학과 실천. 19호 하. pp.61-94.

인을 찾아내고 통일한국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전경숙과 송영호는 이를 위해서 북한 이탈주민을 심층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근거이론 접근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통일이후 발생하게 될 사회문제로 문화적 이념적 갈등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을 예측하였고 사회전반에 북한에 대한 인식변화와 통일 공감대형성 사회양극화 해소 방안이 마련된다면 통일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효과성을 전망하였다.

이와 같이 남북한 통일과 통일이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한국기독교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많지는 않으나 남북한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연구된 논문들은 주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통합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이후 사회통합에 대한 주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정부관련 부처와 연구기관을 통하여 정책수립 및 연구필요성이 제기되어 있는 편이며, 소수 연구된 바 있으나 앞으로 더욱더 많은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체제통일 과정과 체제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필요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더라도 워낙 연구 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사회통합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도 사회전반으로 매우 광범위하므로 한국교회와 연구자들은 남북한 통일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한 보다 다양하고 세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양적으로 아직 부족하고 세밀하지 못한 『남북한 통일과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 기독교의 역할』을 대주제로 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앞으로 이루어질 보다 세밀한 연구 주제들에 조금이나마 디딤돌을 놓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한국 교회와 신자들에게 남북한 간 화해와 통일을 위한 교회적 역할과 사명을 각인하는데 꼭 필요한 연구라고 본다.

2. 연구방법 및 조사도구

본 연구는 남북한의 통일과 사회통합을 위한 기독교의역할을 밝히기 위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이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문제 상황에서 사회통합을 위하여 한국기독교(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하여 문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이주민(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얻은 실증적 경험과 인터뷰를 통하여 질적연구 방법이 진행되었다.

질적연구는 평소에 본 연구자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라포가 형성된 북한이탈

주민과 이들을 통하여 소개를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질적연구는 의미부여와 이해가 목적이고 대상자의 경험과 생각을 구체적인 맥락과 함께 기록하고 당사자의 주관적인 세계에서 해석하였다. 심층면접으로 추출된 자료는 연구 주제와 맥락에 맞게 구성하여 삽입하였다.

〈표 1〉 면접참여자의 일반적 특성⁷⁾

번호	연령	성별	본국 체류기간	제3국 체류기간	한국 체류기간	거주 상태	소득 정도	직업
1	32세	여	17	5	10	임대주택	월180	사무실 보조
2	31세	여	18	2	11	임대주택	월170	사무실 보조
3	35세	여	20	1	14	임대주택	월250	요리사
4	29세	여	22	4	3	임대주택	기초수급	알바
5	43세	남	40	0	3	임대주택	기초수급	무직

<표 1>에 제시된 심층면접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녹음하였으며 녹음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연구자가 직접 전사 작업을 실시하였다. 수집되어 전사된 자료는 주제별로 구분하여 범주(category)를 설정하였고 이것을 검토하는 방식의 근거이론방법을 활용하였다. 범주는 각 대상자 개인별 특성, 탈북하게 된 이유와 과정, 남북통일에 대한 인식, 남한 주민과의 관계 및 인식,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적 요구사항 등으로 나누었다.

3.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남북한 간 통일과정과 통일이후 사회적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을 밝히기 위해 몇가지 사회과학적 이론을 배경으로 제시할 것이다.

1) 남북한의 통일과 사회통합의 개념

통일은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이 하나로 통합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

7) 본 조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평소에 연구자와 자주 만나거나 교류하던 관계가 있던 대상자들로 이미 라포가 형성되어 신뢰관계가 있는 대상자들이거나 그들의 소개로 면접이 이루어진 대상자들이다.

될 수 있다.⁸⁾ 그리고 통합은 여러 기능 가운데 어느 한 분야에서 결합되는 현상을 의미한다.⁹⁾ 그러므로 통일을 논의하면 통합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국가적 통일 과정에서 통합은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으로 좀 더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져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단국가의 통일이 완전한 국가 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은 다양한 제반분야의 통합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¹⁰⁾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말과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된다. 한국사회에서 통일이란 남북한의 국가적이고 체제적 통합이라는 의미가 가장 크다. 그러나 이것도 시대별로 변화가 있었다. 해방된 직후에는 외세로부터의 해방과 자주권을 되찾는다는 의미를 가졌고, 1970년대에는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북한에 승리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1980년대에는 남북한 상호간에 이익을 도모하고 민족적 통합을 이루어낸다는 새로운 의미를 내포했다.¹¹⁾

남북간 통일과 통합을 위해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 여건도 성숙해야하지만 통일의 당사자인 남북한 간 여론과 분위기의 변화와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한국국방연구원 통일대비실장을 지내고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원인 권양주 박사는 그의 저서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에서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과제로 들어가는 방향이 통일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¹²⁾

2)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인 신뢰

하버드대학교 교수이며 정치학자 푸트넘(Robert David Putnam)¹³⁾은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요소가 집단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관계한다고 했다.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원들 간에 긴밀하게 공유되는 제도,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 일체의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런 요소들 중에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다. 한 사회공동체가 사회적 자본이 잘 확충될

8) 조 민. 평화통일의 이상과 현실. p.218.

9) 김 혁. 한반도 통일을 위한 대안적 이론체계의 모색. p.67.

10) 권양주.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 p.183.

11) 정경숙 송영호. 통일대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탐색적 연구. p.57.

12) 권양주 박사는 남북한간 협력과 증진을 위해서 정부, 사회단체, 주민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다방면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13) 최예나(2016).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 연구 제20권 제3호, pp.69~88.

수록 국민 상호 간 거래비용이 적고 효율성은 높아진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생산성이 올라가고 국가의 국민소득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남북한 간 통일과정과 체제통일 후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적 자본의 핵심인 ‘신뢰’ 증진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를 구성할 수 있다. 이처럼 통일과정과 체제통일 후에 남한과 북한 간에 그리고 북한주민과 한국국민들 서로 간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매개자로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

3) 통일과 복음의 공공성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52절에는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심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예수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용서와 화해와 하나됨이라는 의미이다. 한국교회는 6.25전쟁을 통해 받은 상처가 많다. 한국전쟁시기 한국교회는 기록상 최대의 수난과 학살을 당하였다. 북한지역과 북한군이 점령한 남한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학살했다. 교회당은 불탔으며 피난을 가지 못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남북되었다. 이때부터 월남한 북한출신 기독교인들과 학살피해를 당한 남한의 일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교회 일부에는 반공이데올로기가 형성되었다.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국교회는 정치적인 상황에 편승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민족공동체에 대한 화해와 중재의 장을 마련하지 못했고 여전히 대립과 갈등의 파도를 타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기독교의 모습을 갖고 있다.¹⁴⁾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의 김근주 교수는 기독교의 신앙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끝을 향하고 있으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국가적 민족적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사용하셨다. 복음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성경 전체를 압축하는 한 문장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희생과 화해의 메시지이며 ‘그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선지자니라.(마 7:12)’라는 말씀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¹⁵⁾

14) 서정민. 한국교회의 역사. p.55.

15) 김근주. 복음의 공공성. pp.425-432.

이러한 주장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 13:10)’ 그러므로 당연하게도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의 본질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다. 과거에 한국교회가 받은 핍박과 상처로 상대를 멸절의 대상이나 증오의 대상으로 영원히 놓아둔다면 기독교는 이미 그 본질을 잃은 것이다.

III. 통일 준비를 위한 기독교의 역할

1. 교회 안과 밖으로 신뢰 회복

남북한 간의 통일과 통합은 매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하며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 틀림없다. 설혹 독일과 같은 갑작스런 방식으로 체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발생하는 통합과정에서 치러야하는 대가는 정서, 문화, 사회, 심리적 측면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커다란 고통과 대가가 따를 것이다. 이러한 통일과정에서 한국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내외적인 준비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과연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정치학자 푸트넘은 자신의 저서 『나 홀로 볼링(Bowling alone)』에서 1960년대 미국사회가 신뢰 같은 사회적 자본이 감소하면서 즉각적으로 시민, 사회, 협동의 유례없는 쇠퇴를 맞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¹⁶⁾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저서 『트러스트(Trust)』에서 ‘사회 신뢰도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발생하며, 신뢰기반이 없거나 부족한 나라는 사회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선진국 문 앞에서 좌절하게 된다.’고¹⁷⁾ 주장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대사회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에서는 2008년부터 매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여론조사는 2008년, 2009년, 2010년, 2013년, 2017년도 이렇게 다섯 차례 조사 발표하였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2%로 국민 다섯 명 중 1명만이 신뢰한다고 대답했으며, 신뢰도 점수 역시 5점 만점에 2.55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16) Putnam, Robert D., 『나 홀로 볼링』(정승연 역). 서울 페이퍼로드, 2009.

17) 문화일보 ‘신뢰의 붕괴’. 2007. 11. 12. 기사 재인용.

따라 신뢰도 차이가 크게 달라졌는데 기독교인의 경우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59.9%였으며 비기독교인의 경우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대답이 10.7%에 그쳤다. 조사 결과를 발표했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는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신뢰도는 보통이하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¹⁸⁾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한국기독교의 신뢰도는 한국교회내적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도 요소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는 한국교회 내 차세대 인적자본의 유출, 상호간 교류 및 협동력 저하, 재정적 누수현상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교회 내, 교회 간,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 확보야말로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는 영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다. 남북한 간의 통일과 통합의 문제 그리고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한국 교회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신뢰도 재고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대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과 구축은 한국사회의 성숙과 발전까지 연결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 이주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 2015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조사한 통일의식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이주한 북한이탈주민들 중 35%는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남한 생활에 만족하는 이유는 ‘북한에서 살 때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서’ 라는 응답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대체적으로 한국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과정 지원 및 정착과 인권을 위한 활동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그 과정에서 한국 교회를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된다. 인터뷰에 응한 북한이탈주민에게 탈북 과정과 한국정착과정에서 한국교회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느낌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18)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7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2017.

1) 탈북 과정에서 접하는 한국교회에 대한 생각

중국에서 강을 건너서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거기 있는 경찰서로 찾아갔 습니다. 가자마자 경찰들은 우리가 누군지 곧바로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 다. 여기저기 우리를 데리고 조사를 했는데. 거기는 어디를 가나 한국 사 람들이 있었고 다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필요한 것을 잘 챙겨줬고 항상 도와줬지요. 【사례1/32세/여】

중국에서 탈북루트를 타는 거나 북에서 나오자마자 도움을 받을라고 하 면 교회 아니면 안돼요(없어요). 탈북 하는 사람들 열에 열은 다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교회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예요. 아들(아이들) 건사하고 챙기는 것까지 다 신경써주지요. 【사례3/35세/여】

탈북하고 수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오래 걸렸지요 뭐. 그 얼 마나 길어도 그 긴 날을 기도하면서 (준비).. 하고 (교회가).. 도와주고 그랬 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한국에 와서 많이 (교회)안가고 맙니다. 생각이 변 한 것도 있기는 있는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부담이 되고 .. 그런 .. (어려운 마음 문제가) 많지요 뭐. 【사례4/29세/여】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탈북과정과 한국입국과정 그리고 정 착과정에서 한국교회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심리적으로 외롭고 육체적으로 도 힘든 과정을 거쳐야하기에 한국교회의 도움과 신앙은 자신들에게 큰 힘이 되 었던 것 같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질적인 교회의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고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대중에 자신이 노출되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 러워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숨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 과정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생각

중국에서 태국까지 길안내를 해주고 숨겨 이동하고 하는 모든 걸 선교 사님하고 부로커하고 함께 해주지요. (중국에 있을 때 듣기로) 한국에서 사람들이 계속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올 때 돈이 많이 들어요. 우 리가 돈이 어데가 있는가. 한국에서 조금조금씩 모아서 보낸 돈으로 태국 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오는 거지) 【사례2/31세/여】

나는 (중국이나 3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왔어요. 사람한테 속아서. 내 배로 바다에 나가 중국 배랑 물건을 바꾸자고. 그것만 하든 돈이 되거든. 내가 물건을 잘 아니까 나더러 배를 빌리자고 해서 이틀만 중국가까이 갔 다가오면 된다고 해서 속아서. ... 하나원 나와서 막막했는데. 하나원 교회

에서 예배드리던 목사님이 소개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지요. 교회는 안나가도 친하게 지내지요.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고 그러면 전화도하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줍니다. 【사례5/43세/남】

하나원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살림이 (없어서) 어려웠어요. 집이 정해져서 집에 들어갔지만 첫날 놀라고 서럽습디다. 아무것도 없으니 막막하고 커튼도 그릇하나 수저도 없었으니까. .. 그전에 자주만나고 모임도 함께 하던 센터(기독교 북한센터)에서 대표목사님 그리고 간사님들이 와서 이불, 밥솥, 그릇, 커튼, 문잠그는 자동열쇠도 달아주고 쌀도 포대로 해주고 그래서 고마웠지요. 고맙고 든든하고 많이 울었어요. 【사례3/35세/여】

탈북민이 제3국에서 탈북과정을 도와주는 조직을 만나 한국까지 들어오는 과정은 매우 험난하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믿을 만한 브로커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인터뷰를 통한 조사과정에서 탈북민들을 돕고 있는 한국교회와 관련기독교단체들은 북한을 탈출해 나온 북한이탈주민들을 보호하고 제3국으로 이동시키는 루트를 관리하고 하나원과 연결해서 한국 내에 정착하고 적응하는 모든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어려움을 세밀하게 돕는다는 사실과 탈북민들이 이 관련 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 중에는 제3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자가 만나서 인터뷰를 했던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서해바다에서 배를 가지고 바다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중국과 밀수를 하던 사람들에게 속아 서해바다로 멀리 나왔다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으로 오게 된 경우도 있었다. 한국에 와서 오랜 시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힘들었고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과도 만날 수 없고 되돌아 갈수도 없는 상황에서 오랜 조사기간과 정착 기간 동안 도움을 준 곳이 한국교회였다고 했다. 그는 자신은 신자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자신을 도와준 교회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현재 자신의 종교와 상관없이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종교단체에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교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제적인 필요에 관심을 갖고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해야한다. 한국교회는 전도와 선교라는 말에 함몰되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에 대한 태도와 사명을 도외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을 선교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할 이웃이며 예수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야한다. 만약 선교와 전도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고객을 끌어 모으려고 하는 기업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2011년부터 통일관련 기독교연합운동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기독교통일운동 단체들의 활동을 지켜보며 협력하고 있다. 그 중에는 제3국을 통하여 직접 탈북과정을 기획하고 돕는 단체도 있고 탈북자들의 인권과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며 활동하는 단체도 있다. 그런데 눈이 띄는 것은 이런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는 기독교계열의 단체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통일관련 단체들에 대한 일반적인 한국교회의 관심은 전무한 상태이고 또 지원과 협력은 더욱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3)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과 복송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위한 활동

북한 정부는 북한의 주민들을 3개의 사회계급 계층으로 나눠서 관리한다.¹⁹⁾ 다양한 이유로 북한을 이탈하던 도중이나 이후에 체포된 북한주민들은 체제에 대한 불순분자로 분류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장단기적으로 수용되고 극단적인 환경에서 통제와 조사를 받게 된다. 북한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정부도 중국내로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난민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내 법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변화시켜보기 위해서 한국 기독교회와 일부 북한인권관련 단체들은 UN 등 국제기구와 연대하거나 대한민국정부에 관련 조치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 교회와 기독교 관련단체를 통하여 북한 내 다양한 계층과 지역에서 탈출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연대하고 있으며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활동 또한 한국기독교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건강한 통일을 위한 일들이다.²⁰⁾

19)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오공단의 미국의회 증언에서)

20) 북한정의연대(www.justice4nk.org). 탈북자의 증언. “저는 2005년도에 북한을 탈출하였으나 중국남자에게 팔려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신고로 중국경찰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복송당하였습니다. 온성 노동단련대로 이관되었는데 그당시뱃속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임신상태에서무거운 돌을 들고 뛰어다니도록 하는 강제노동과 폭력으로 결국 5개월이 채 안된 태아는 유산되었습니다. 노동단련대 강제복무를 마치고 중국으로 재탈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임신매매범들에 의해 중국남자에게 팔렸고 어린 딸을 낳아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또 중국 공안에 체포되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어 다시 강제노동과 강제낙태를 당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중국공안의 체포를 당할까봐매우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저를 제발 한국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4) 통일준비기도회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통일아카데미 개설

본 연구자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기독교는 각 주요시에 통일관련 단체들이 3개에서 5개 이상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²¹⁾ 통일을 준비하는 기독교 계열의 단체들로는 (사)국제옥수수재단, (사)국제푸른나무, 굿피플의사회, 기독교북한선교회, 기독교통일전략연구센터, 기독교통일포럼, 기독교통일학회, 기아대책, 나 오미네집, 남북사랑네트워크, (사)한국리더십학교, (재)마중물, (재)미래 나눔, 변혁한국, 북한교회연구원,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 북한정의연대, 사랑나눔, 사랑의교회북한사랑선교부, 생명그루, 수레바퀴북한선교회, 여명학교, 열매나눔재단, 예수원삼수령센터, 예수전도단북한전략학교, 원네트워크, (사)우리탈북민정착기구, 유코리아뉴스, 이음세움나눔, (사)위드, 주빌리아카데미, 진리와자유, 탈북민자립지원센터, 통일비내리는날, 통일선교사역교회연합, 통일소망선교회, 판문점교회, 평화나눔재단, (사)평화한국, 포타미션, 하나원, 하나교회, 하늘꿈학교, 하심공동체, 한국OMS선교회, 한국기독교디자인연구소, 한국기독교통일연구소,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 한꿈학교, 한민족가정사역연구원, 한서농일목회연구소, 홀리네이션스, 1907리바이벌닷컴, ACTS 구한선교연구원, CCC통일봉사단, JWM, NKB, PN4N, RGNNet, Reah International, TWR-Korea, 위 십무브먼트예배학교, 주빌리해외 18개 지부 등²²⁾ 70개가 넘는 단체들이 북한과 통일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 단체마다 규모는 차이가 있으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아카데미를 일 년에 한 두 차례 이상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같은 기독교계의 통일준비아카데미(학교)류의 활동은 한국사회 일반인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정부차원에 통일과 관련한 정책을 이끌어 내는데 효과적인 지지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창조적 방식의 대북 교류를 통한 지원활동 모색

민간단체의 북한과의 교류는 남북한 간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극과 극으로 영향을 받는다. 2019년 말 현재는 남북한 간 교회를 포함한 민간단체의 교류와 활동

21) 광주광역시에는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NK비전센터, 통일소망선교회, 통일선교아카데미 등의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월또는 매주 회집하는 집회를 통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서울 경기지역에는 70여개의 북한관련 기독교 단체들이 연대하는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가 상시 회집하고 있고 북한과의 교류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2019 시카고한민족 통일서밋. 강하고담대하라. 한국기독교 통일관련 단체 활동현황 보고서.

이 거의 중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상황일 뿐이다. 북한과의 교류가 중단된 것처럼 보이는 현재도 얼음 밑에서 계곡물이 흐르듯 적지 않은 교류와 이동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미국에 본부를 둔 한국계 단체인 ‘조국을 푸르게’가 주관한 북한 육묘장 방문 및 북한 산하에 나무심기 행사가 5박 6일 일정으로 북한 평양과 원산, 남포시, 온천군, 판문각, 개성에서 열렸다. 남한 쪽에서는 20여명의 한국교회지도자들과 기자들이 방북하였는데 지난 10월에 시카고통일서밋에서 본 연구자가 직접 만나 인터뷰를 실시했던 ‘조국을 푸르게’의 대표인 김호진 장로는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은 어렵다고 생각하면 100% 어려운 것이고 쉽다고 생각하면 100%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회는 정치권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름대로 방향과 방법을 의논하고 한국정부와 사회가 통일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야한다. 해외 한인디아스포라단체들 또는 해외 인권단체들과 협력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 가능하다.

그렇다면 한국기독교회는 어느 선까지 북한에 지원하고 재정을 투자해야하는가? 사실 기준은 없다. 그러나 본 연구자에게 물어본다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현재 각지 교회와 개별 기독교 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부동산을 모두 합한 재산의 절반이상은 통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기부하거나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기독교회는 기업이나 회사가 아니다. 신도들의 현금으로 만들어진 재산이다. 누구 특정인이 주인도 아니다. 한국교회는 분단된 국가위에 서 있는 교회로서 분단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고 있다. 한국기독교가 민족적 국가적 통일 노력에 전재산을 다 내놓고 노력한다면 통일은 더 건강하게 일찍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재산을 다시 만들어진다.

IV. 결론

본 연구자는 통일 후 사회통합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미 통일을 경험한 독일은 우리에게 놀라울 만큼의 인사이트와 모델을 제공한다. 2009년에 독일 튀빙겐대학교 신학부에서 한 세미나가 열렸다.²³⁾ 거기에서

23) Juergen Moltmann. 세미나 강의 녹취록. 2009년 1월 13일 베를린선교회에서 개최한 공동세미나.

신학자인 몰트만은 한가지 질문을 던졌다. “교회가 통일 후 통합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통일의 비주도국 사람들을 주도국의 체제에 적응(순응)하도록 만드는데 힘을 써야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적응과정을 교회가 돕는다는 것은 그것이 독일이나 한국이나 할 것이 없이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 우리가 당연히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접근하는 방법과 목표가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닐 수가 있다.

남북한이 체제가 통일된 후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이 시장경제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혹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교회의 진정한 역할인가?에 대해 남한의 교회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회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곳은 아니다. 교회는 시장경제가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신학자 볼트만도 주장했던 말이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에는 사도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을 하던 앓은뱅이 걸인에게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국교회는 돈은 있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없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성전 미문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준비가 된다면 앓은뱅이는 일어설 것이다.

위에서는 남북한이 체제통일이 되기 이전에 한국교회가 해야 하는 노력과 역할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다. 남북한의 체제통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었다면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올해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과정이다. 그러나 이제는 남북한의 체제통일을 준비하는 단계를 넘어 체제통일 이후에 통합을 준비하고 모색하는 것도 서둘러야한다. 이러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 기독교계열의 국제어린이양육단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수십억의 재정을 투입해서 남북한 통일 이후에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 단체의 사업담당자는 ‘통일 이전을 살고 있는 어른들은 통일 이후를 살아갈 후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단체는 종교적인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지역 아동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북한지역의 각 단위별로 어린이 청소년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센터를 중심으로 임신상태의 태아일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필요한 정서적, 신체적, 지적, 영적 성장에 필요한 교육과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일을 위해 현장에서 일

할 사람들을 교육하고 있다. 이 일에 지원산 자원봉사자들은 일정수준의 교육을 이수해야하고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었을 경우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북한지역에 투입되어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것을 서약한다고 한다. 이 같은 계획은 통일이후를 대비한 구체적인 준비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다.

1. 아버지 역할자로서의 교회의 역할

한국교회는 조직으로서의 교회에 익숙하다. 교단과 교파를 구분하고 나누고 같은 것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그래서 북한과 북한의 교회조직을 바라볼 때도 협력과 교류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의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짙다. 그런 태도로 통일체제 이후에 통합을 주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삼대세습체제로 김일성을 영원한 태양이며 아버지로 믿는다. 그러나 통일체제가 만들어 지는 날 그 체제에 변화가 오고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아버지의 존재는 사라질 것이다. 그 때의 심리적인 허탈감과 배신감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교회는 이때 아버지, 가족,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 그 사람의 종교에 상관없이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에게 지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그 자체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천국에 가면 교회라는 제도는 없다. 교회는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유한한 조직에 불과하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할 때에만 교회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2. 봉사, 선포, 친교를 수행하는 교회의 역할

독일 통일과정에서 그리고 체제 통일 이후에도 서독의 교회는 봉사, 선포, 친교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다. 서독의 교회는 통일 전 40년 동안 끊임없이 봉사자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체제 통일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교회는 무엇보다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자 비신자를 나눠서는 안 된다. 고난 당한 자라면 누구든지 도울 수 있어야한다. 그리고 국민들과 공통의 미래를 만들고자 노력할 수 있는 자리이면 어디든지 참여해야 한다. 개별적이든 연합적이든 교회가 목소리를 내고 봉사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참여해야 한다. 교회는 교회의 대표이며 고난 받는 자들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인이 되어주어야 한다. 이것이 봉사이며 선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남북한이 하나 되는 진정한 친교로 발전할 수 있다.²⁴⁾

3. 지속적인 화해와 평화 교육자로서의 교회의 역할

기독교가 2천년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그리스도의 화해와 평화 전달자로서의 역할 때문이었다. 기독교가 여전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외쳤다면 잠시 흥했을지는 몰라도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평화를 주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복수와 미움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며 인류가 추구해야할 영원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70년 전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부터 핍박 받고 살해당했던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일부는 여전히 미움과 증오를 안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한다. 잊지는 않되 화해하고 용서해야 한다.

체제 통일과 통합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다툼과 싸움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느 편에 서기보다 이들이 어떻게 용서하고 화해해야하는지 선포하고 가르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은 원래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 통일 전에는 하고 통일 후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통일 과정에서 상처받고 분노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계속되는 싸움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호해야한다.

4. 예측시스템을 도입하고 통일과 통합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

수많은 기업과 국가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미래 예측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한반도의 미래도 사실 몇 가지로 예측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네 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남북한 경제가 정체되고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와 역량 부족으로 2국가 체제가 장기화되는 것. 이 같은 상황에서는 북한은 계속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남한은 분단 고착화로 외교정책과 국가미래전략에서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둘째, 북핵 갈등은 심화되고 대북제재도 더욱 강경해 지는 상황이다. 남한의 경제와 사회문제 전반에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갈 확률이 커진다. 셋째, 비핵화과정에서 협상이 성공하고 대북제재가 획기적으로 완화되고 북한에서는 민주화운동이 확산되고 체제에 위기가 온다. 남북한의 경제가 동반 성장하고 통일 의지가 약화된다. 넷째, 북핵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고 유엔의 북한 제재가 철회된다. 남북한이 함께 경제가 성장하고 협력을 통해 동북아

24) 이범성(2009). 통일 하나님의 나라운동. 신학과 실천. pp.61-94.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된다.²⁵⁾

위와 같은 예처럼 한국교회도 예측시스템을 도입하고 통일과 통합을 위한 협의체 내지 실무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 도시별 그리고 교단의 총회와 노회에 통일준비위원회를 두고 각 지교회별로 담당자를 세워 남북한 통일준비와 통합에 필요한 자료를 기도제목 형식으로 회람하고 필요하면 긴급하게 재정도 투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땅에 정착한 숫자가 3만 명을 상회하는 시점에서 통일을 넘어 통합을 위하여 한국기독교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폈으며 그리고 체제통일 이후에 남북한의 원활한 통합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라는 종교성을 특징으로 하는 종교조직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다보니 종교적인 용어와 계량적이지 못하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용어사용도 있음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회 차원에서 통일 한국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과 체제통일 이후에 발생할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교육하거나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가 향후 체제통일을 이룬 통일 한반도를 위한 사회통합 정책 수립과 한국교회에 조금이나마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참고문헌

- 감병오(2012). 「한국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 실추 원인과 대책」. 신학과 선교 제41집. 61-84.
- 강문규(2016). 「한국 사회강등의 요인들에 대한 화해의 기독교 교육적 모색」. 신학과 실천. 51호. 461-499.
- 김기련(2001). 「독일 통일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 한반도 상황과 비교해서」. 역사 신학 논총3집. 56-59.
- 김면희(2019). 「베를린장벽 붕괴 30년 통일 독일 사회통합의 현주소: 후발주자 분단 한반도의 선택」. 접경지역통일연구. 제3권 제1호. 통권 제5호. 11-34.
- 박종소(2009). 「사회통합의 시작에서 본 구동독교회의 딜레마」. 신학과 실천. 제19권 제2호. 31-59.

25) 모자이크 코리아. 2019-2029 시나리오 한반도. p.190.

- 이범성(2009). 「통일 하나님나라 운동. 신학과 실천」. 제19권 제2호. 61-94.
- 이상은(2018). 「분단상황하 균형자로서의 교회의 역할: 독일 “연합교회”의 역할과 실천연구」. 선교와 신학. 44호. 353-384.
- 이재영(2018). 「한국사회의 보수 진보 갈등과 통합의 통일사상적 관점」. 한국종교 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제1주제. 55-77.
- 이희안(2008). 「평화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보장의 방향」. 평화학연구. 제9권 제2호. 113-135.
- 전경숙 송영호(2019). 「통일대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탐색적 연구」. 다문화와 평화. 제13집 1호. 56-76.
- 정재영(2005). 「사회 통합 관점에서 통일 후 기독교의 역할」. 복음과 실천신학. 9호. 389-414.
- 정재영(2009). 「새터민을 통해 본 통일 후 교회의 역할」. 시학과 실천. 19:2호. 95-124.
- 정학규(2007). 「남북한 통일 후 사회통합을 위한 NGO의 역할」. 한양대학교.
- 조귀삼(2010). 「다문화 에큐메니즘 현상에 따른 문화충돌과 사회통합 도구로서 한국교회의 역할」. 특집: 다문화 상황과 선교. 복음과 선교 제13집. 77-104.
- 한정호(2017). 「한국사회의 갈등 어디서 오는가?: 8개의 고질적 갈등과 소통전략」. 통합인문학연구. 제9권 제2호. 267-273.
- 강동완 라종억, 『북조선 환향녀』 서울: 너나드리, 2017.
- 권양주,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4.
- 권오성, 『독일 통일, 교회가 열다』 서울: 두어자, 2016.
- 김병로, 『북한, 조선으로 다시읽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모자이크코리아, 『2019~2029 시나리오 한반도』 경기도: (주)샘앤파커스, 2019.
- 박한식 강국진, 『선을 넘어 생각한다. 남과 북을 갈라놓은 12가지 편견에 대하여』 서울: 부키, 2018.
- 배기찬, 『코리아 생존전략』 경기도 : (주)위즈덤하우스, 2017.
- 이삼성,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핵무장국가 북한과 세계의 선택』 경기도 : (주)도서출판 한길사, 2018.
- 2019시카고 통일서밋 강하고 담대하라 자료집.

Abstract

The Role of Christianity (Church)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ocial Integration

– Focusing on the Process of System Unification and the Problem of the subsequent Integration –

Jeon, Duck-Ann
(Gwangju Migrant Support Center)

To describe the reality of the divided nation in one sentence, it is a “threat of military confrontation and war that cannot be denied for a moment.” Under the perception of the situation, Korean society and the Korean church should consider and try to change this anxiety into peace. The church has a community concept that encompasses not only the domain of the individual but also the problems of the family and the state. Therefore, it is the mission of the church to take on the role of national conciliator. The republic of Korea is a divided nation and it's the church has the ‘identity of being a divided nation’ built on the Rep. of Korea.

This year, the 70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while the inter-Korean summit and the U.S.-North Korea summit are accelerating, they do not see clear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the role of the Korean church for the reunification and subsequent integration of the system. As a research method, in-depth interviews with five North Korean defectors were conducted, and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 was employed to analyze the data. The main elements are trust that is one of the key factors for the social capital by Putnam, and bible which is a special revelation in Christian theology.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used to summarize and analyze the statements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settled in Rep. of Korea while analyzing various activities of Christian Organizations and Korean Church. Besides, the role and direction of the Korean church was analyzed to strive for integration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system.

Key words: unification of system, integration, social conflict, North Korean defector, Korean church, role, Korean Christianity

논문접수일	2019.10.30	논문심사일	2019.11.15	게재확정일	2019.11.20
-------	------------	-------	------------	-------	------------